나의 서원 나의 신행 〈19〉

아이들 눈높이 불사 40년

어린이 포교의 기수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

성일스님은 … 1963년 해인사 삼선암에서 장윤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여 1969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1973년 화성 신흥사 주지로 부임해 현재 사격을 만들었다. 스님은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975년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 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법회를 개설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수만 명의 어린 새싹들을 길러냈다. 그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패(1984년), 경기도 선행도민상(1986년), 경인봉사대상(1986년), 법무부장관 표창패(1987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1996), 만해대상 포교상(1998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2006년),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2012년)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Ⅰ, Ⅱ〉,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청소년 불교학교 지침서〉, 〈신도포교 지침서(상 · 하)〉, 〈현대관음기도영험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경기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농복합시 화성. 이곳에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유명 사찰이 두 곳이 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와 화성 신흥사다. 특히 화성 신흥사는 척박했던 한국불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기틀을 세운 포교 중심도량이기도 하다. 이런 신흥사의 눈부신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주지 성일 스님이 있다.

'부처님 교화공원' 준공법회에 앞서 찾았을 때에도 성일 스님은 신도들을 상담하며 신행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포교'만큼 스님의 평생의 원력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는 없는 듯 했다. 이런 스님의 노력은 올해 포교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소자 편지로 포교 원력 세워

옮긴 자리, 스님에게 던진 첫 질문은 당연히 '발심의 계기'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스님에게서 40년의 역사가 흘러나왔다.

성일 스님이 신흥사 주지로 부임한 것은 1973년 여름. 여법한 전각 하나 없는 허름한 농막법당이었다. 흙벽의 기와가 덮인 낡은 법당 지붕에선 썩은 추녀물이 흘렀고, 법당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스님은 도량 정비부터 시작했다.

"사하촌에서도 사찰 주지 스님이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몇 분이 왔다가 갔지만, 신도는 아니었습니다. 도량을 정비하고 법당 문을 열고 첫 법회를 가졌는 데 12명이 옵디다. '포교가 급선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이 깊어질 때쯤, 스님은 한 재소자의 편지를 받는다. 당시 성일 스님은 매주 한 번씩 수원교도소에서 법문을 하고 있었다. 이에 교화를 받은 한 20대 살인범 재소자가 스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벌써 40년이 지난 일이지만, 스님은 그 편지 내용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상이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생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우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사탕부터 사서 걸망에 넣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그때마다 부처님 전생담이나 경전 속 일화를 재미있게 들려줬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이내 스님과 살갑게 지내게 됐다.

어린이 불교학교를 시작하다

자신감이 붙은 스님은 1975년 처음으로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설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60명의 어린이들이 몰려왔다. 공간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아침에 학교를 열어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 귀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원이나 과외 교육이 없던 시절, 사찰에서 예절을 배우는 불교학교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의 호응도는 높았다.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원 2년 만에 학생수는 200~300명으로 훌쩍 뛰었다.

"당시 신흥사는 조그마한 법당이었지만, 여법한 어린이 교육수련장이자 청소년들의 쉼터였죠. 부처님 품안으로 오는 어린 불자들을 원만히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용 교육 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삼보정재를 아끼고 아낀 스님은 1986년 11월 청소년 수련원을 세우게 된다. 개원 당시 신흥사 수련원은 불교계 유일의 어린이, 청소년 교육 시설이었고 교계 안팎의 관심도 쏟아졌다.

이런 관심은 이듬해에 바로 나타났다. 1987년 수련원 개원 이후 첫 여름 수련법회에 7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찾아왔다. 인솔교사와 스님들까지 합치면 800명에 달했다. 결국 인근 군부대 협조를 얻어 군용텐트를 사찰 경내 설치했다.

"운력을 진행하는 데 청소할 공간이 없을 정도였죠.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신흥사 어린이불교학교가 인기를 끌 수 있던 요인 중 하나가 자체 프로그램과 교재였다. 매회 진행됐던 수련회마다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도전이었다. 스님은 지금도 사용했던 모든 교보재들을 보관하고 있다.

"한 통의 살인범 재소자 참회 편지
나를 어린이 청소년 포교로 이끌어"

청소년 수련원 · 어린이 법당 건립
교재 제작 · 놀이체험 프로그램 진행

농막 법당에서 시작한 신흥사
30년 두문불출 정진 25년째

기도로 일궈온 어린이 도량 불사

난관도 많았다. 수련원 첫 불사 이후 스님에게 안겨진 부채는 1억 2천여 만원. 사실 포교는 생산이라기보다 투자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찰 재정을 아끼고 아꼈지만, 부채는 줄어들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교를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스님은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기로 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다. 그렇게 1988년 스님은 첫 두 문불출 10년 기도에 들어갔다.

"하루 9시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찾아온 신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법문도 했죠. 저는 부처님 가피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고민했던 부채 문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해결됐습니다."

스님의 기도정진은 불자들에게 큰 감화로 다가왔다. 스님과 함께 기도 정진하는 불자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갔고, 신흥사의 가람들도 제자리를 찾았다. 1990년에 큰법당이 준공됐고, 1993년에는 청소년 교육관이 건립됐다. 1994년에는 어린이 전용법당을 세웠다.

모든 불사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맞춰 진행됐다. 사찰 편액들도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 전부 한글로 제작했다. 특히 어린이 법당은 자비로운 관세음보살과 천진난만한 선재, 문수 동자상이 모셔졌다. 단청과 벽화 등도 모두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색상과 문양을 사용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불사, 신흥사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40년 포교 원력과 더불어 10년씩 세 차례 걸쳐 진행되고 있는 30년 두문불출 기도정진은 올해 25년째로 신흥사의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스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법이 있을까? 스님은 단박에 "그런 것 없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기복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지극한 마음을 담아 서원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불보살의 가피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기도 가치에만 의존해 머무르려하지 말고, 마음공부도 열심히 해 성불에 이르도록 정진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불교대학을 통해 불교교리를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천원의 원력으로 지어진 수선당

농막법당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도량으로 발전하기까지 원력과 기도와 더불어 신흥사를 지탱한 것은 스님의 검소함이었다.

특히 신흥사의 '수선당' 불사는 스님의 절약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다. 1973년 처음 신흥사 주지로 부임했을 당시 스님은 한달에 1000원을 예금하는 은행적금을 들었다. 1년을 모았더니 12400원이 됐다. 이를 그대로 예치했고, 형편이 나이지면 2000원씩 붓기도 했다. 10년 기도 입재에 앞서 금액을 확인하니 1만원이었던 돈이 1800만원이 돼 있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는 마음에서 스님은 다시 은행에 예치했다. 10년 기도 회향 이후 이 적금은 5400만원으로 불어있었다.

"천원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 적금으로 수선당을 지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오대산 육송을 직접 사왔지요. 수선당은 1000원의 원력과 내 발품으로 지어진 법당입니다."

이번에 조성된 '부처님 교화공원'도 마찬가지였다. 44억원이 들어간 대작불사는 신도와 불자들에게서 30억 원의 불사금이 모연됐고, 나머지 모자른 재원은 스님의 보험금으로 해결했다. 그간 보험설계사를 하는 신도들의 부탁으로 매년 하나, 둘씩 들어준 보험들이었다.

"가끔 신도들이 와서 보험을 어렵게 부탁해서 들어준 것이 매년 2, 3개가 됐습니다. 불사를 하면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상당했죠. 만기된 것은 찾고, 현재 내는 것들은 전부 해약하니 모자랐던 대금들이 해결됐습니다. 아마 신도들이 부탁한 보험들은 오늘을 위해 사용하려고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켜켜이 쌓여가는 인연의 공덕

40년이라는 시간, 척박했던 한국불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이끌었던 스님에게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아이들이 쓴 소감문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법회하고, 아이들과 수련회를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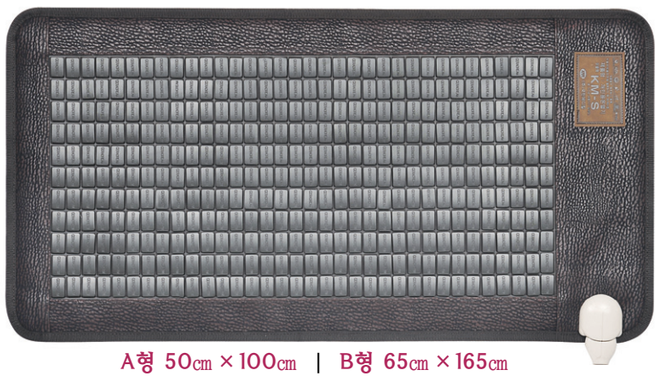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방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힘들었지만 즐거웠죠”

신흥사 불사의 특징은 전부 어린이를 위해 맞춰져있다. 사진은 1994년 문을 연 어린이 법당.

성일스님의 저서들. 스님의 원력과 노하우가 담겨있다.

매년 새롭게 발간되는 불교학교교재는 신흥사만의 장점이다.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만큼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소감문을 읽을 때마다 피로가 다 가시더라구요.”

스님은 어린이불교학교, 불교대학 체험기를 묶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하의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을 보면 당시 학생들이 신흥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감흥들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

“내가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주지 스님 설법을 듣는 일이었다. 스님께서 동화 형식으로 이야기해주시니 무척 배울 것이 많고 재미있었다. 이런 설법은 하루종일 듣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윤정, 방배초등 6년, 1985년 어린이불교학교)

“나는 평상시 교회 가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불교학교를 보내고 나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앞으로 부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 아이들에게 법보시를 해야겠다.”

(설원영, 안산 중앙초등 4년, 1991년 겨울불교학교)

스님과의 인연으로 출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 생겨났다.

“김천 직지사 중암에 있는 진량 스님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신흥사 어린이 불교학교를 다녔지요. 5대 독자인데 해군 군법사로 전역하고 이제는 어엿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지요. 가끔 신흥사도 들리곤 한답니다. 출가 여부를 떠나 신흥사에서 수련했던 어린 불자들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교화공원, 새로운 도전의 시작

스님은 최근 새로운 도전에 들어갔다. 바로 ‘부처님 교화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량을 문을 연 것이다. 공원을 건립한 이유도 변화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부처님 초전 법륜부터 제1차 경전 결집까지 총 13장면이 석상으로 꾸며졌다. 또한 부처님 팔상성도, 〈부모은중경〉도 석판으로 만들어졌다,

1995년 열린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모습. 입추의 여지없이 아이들이 들어차있다.

매일 기도 · 법회 힘들어도
아이들 소감문 읽으면 ‘환희심’
21일 준공한 ‘부처님 교화공원’
가족 신행문화의 새 장 기대

‘부처님 교화공원’은 시각적 조형물만 아니라 청각적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조성된 석상 앞 안내판에 서면 음향센서가 자동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전의 법문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온다. 법문 녹음은 유명 성우인 박일 씨가 맡았다. 이 같은 시 · 청각의 조화는 성일 스님의 아이디어다.

“요즘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예전과는 달리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도 3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해요. 다들 수련회에 오기 전에 너무 지쳐있더라구요. 갇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교화공원 건립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교화공원’을 부처님 법을 배우는 가족 교육 도량이자 수행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겠다는 스님의 포부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전 속에서 만난 2600년 전 부처님 제새 당시 사람들의 삶 역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교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희망찬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 구봉산 너머로 해가 뉘엿이 넘어간다. 옆으로는 이번에 조성된 교화공원이 장엄하기만 하다. 신흥사의 새로운 원력과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정자나무

동국대 명예교수

정자나무를 느티나무라 부른다. 회화나무, 괴목이라 부르기도 한다. 나에겐 여느 이름보다 정자(亭子)나무가 이미 익숙해진 말이라서인지 마음에 든다. 정자나무는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 그 그늘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에 나가기 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행인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어린시절 집 앞에는 수령을 헤아리기 어려운 우람한 정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외지에서 만나는 정자나무는 친근감이 더하다. 옛 정취까지 자아내니 다정하기 그지없다. 이따금 가로수로 열병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인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기도 한다.

산행길에서 정자나무에 유독 눈길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일까. 누가 언제 심은 나무도 아니다. 이 나무는 종자로 번식을 하는데 꽃은 5월 경에 핀다. 나무 크기에 비해 꽃의 크기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나무 밑 바닥에 가득 떨어진 좁쌀 모양을 이상히 여겨 가지를 살피다 보면 비로소 정자나무의 꽃을 만나기도 한다.

산을 오르내리며 곁가지는 몸통에 가까이 잘라주기도 하였다. 가지를 줄기 가까이 잘라주지 않으면 자라며 옹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속이 비어 쉬 부러지는 수가 있다. 마치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 같다고나 할까. 폭풍이나 태풍이 불면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산행길에서 만나는 재넘이는 청량음료수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바람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길손의 마음을 갸볍게 하고 육신에 밴 땀을 식혀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봄에 야린 잎은 이제 제법이다. 마치 아트지마냥 야무지게 무장을 하였다. 일 년에 절반 이상 햇빛을 볼 수 없는 야국(夜國)의 환경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잔약(孱弱)한 뿌리는 깊숙한 땅속에서도 그 생명의 심호흡을 토해내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나무의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것이다. 불려가다 보면 나무줄기에는 더뎅이가 앉는다.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면 딱지가 떨어져야 새살이 돋아나듯이 나무도 더뎅이를 떨구어냄으로써 몸집이 불려지는 것이다. 담쟁이 덩굴은 나무의 근기를 떠보려는지 드레질이라도 할 양으로 살금살금 기어오르고 있다. 작은 표시를 해 놓고 가면 언제 자랐는지 모퉁이를 휘감고 가는 덩굴의 정진에서 무언의 설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제 쉼 없는 정진을 하던 담쟁이도 잎을 떨구고 있다. 지쳐서가 아니고 양보의 미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이리라. 성장을 계속 고집하고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이듬 해 새싹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만다. 거기에는 성장도 없다.

잠시 눈을 산하(山河)에 머물러 본다. 천자만홍(千紫萬紅)이란 바로 저런 모습을 두고 한 말일 것 같다. 어느 거대한 도채(塗彩)장이가 있어 저리 곱게 물들여 놓았을까. 자연은 참 신비하다. 신비를 넘어 경이로움의 대상이다. 그 위대한 도채장이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아닐까. 산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거나 육안이 정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광경을 감탄으로 승화 시킬 수 있겠는가. 마음은 화공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였다. 일체유심조란 이 대목에서 나올만한 표현인 듯하다.

사람들은 큰 나무를 보면 감탄하기도 하고 한 번 더 바라보기도 하며 발길을 멈추기도 한다. 사람의 눈길과 발길을 잡게한 공신이 있다.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굳건히 뻣어나간 뿌리의 역할이다. 누구 하나 봐 주는 이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변도 의식하지 않는다. 오직 뿌리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간단한 답변만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저렇게 신록이 우거진 나무를 키워냈고 울창한 산림을 이루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 할 것만 같다.

나무뿌리에서 헌신의 미덕을 배운다. 그 뿐일까. 겸양의 덕도 배운다. 줄기나 가지 잎에게 왜 나의 공을 모르느냐고 반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줄기도 나름대로 내세울 말이 있을 것이고 잎

에너지 충전하는 휴식공간
인간은 나무에서 위안 얻어
그 넓은 품은 세존과 같아

도 내가 아니면 푸르름을 지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푸르름을 잃은 나무는 이미 나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도 하다. 이 푸르름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휴식 공간이 된다고 주장할 만도 한 일이다. 나무는 역시 지혜의 표상인 듯 하다.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아량이 없다면 자멸의 길 뿐이다. 한 해 이태가 아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묵언을 하며 살아온 나무에서 인욕도 배우게 된다. 마치 육바라밀의 실천자가 저 정자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나무 이름 가운데 참나무가 있다. 그 삶이 얼마나 진실 되었으면 참 나무가 되었을까 반문해 본다. 사람의 말 가운데에도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 나무도 그 삶의 질을 따져 붙여진 것 일지도 모를 일이다. 참과 위선을 넘어 모두를 아우르는 나무가 정자나무라고 본다. 마치 세존이 인종과 국경을 한정짓지 않고 진위여부를 묻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세존의 넓은 품속에 세상 온갖 것을 가리지 않고 품어주듯이 정자나무도 흡사 그런 것만 같다.

가을 햇살이 정수리를 겨냥하고 있다. 따가워 이내 소매를 올려본다. 아니야 저 햇살도 순간이라면 안고 가보자. 유한한 것의 속성이 소멸일터이니.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11월 감사 특가 99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중국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4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유류할증료 불포함)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새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